‘佛流’로 동북아 갈등·위기 극복 나서야

동북아 평화위한 한중일 불교 역할 – 전문가에게 듣는다

지난해 한중일 삼국의 지도자는 전부 교체됐다. 한국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일본은 아베 총리가 다시 집권했으며, 중국은 시진핑이 정권을 잡았다. 한중일 정권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동북아 정세도 새 판에 놓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무쌍한 동북아 정세에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스님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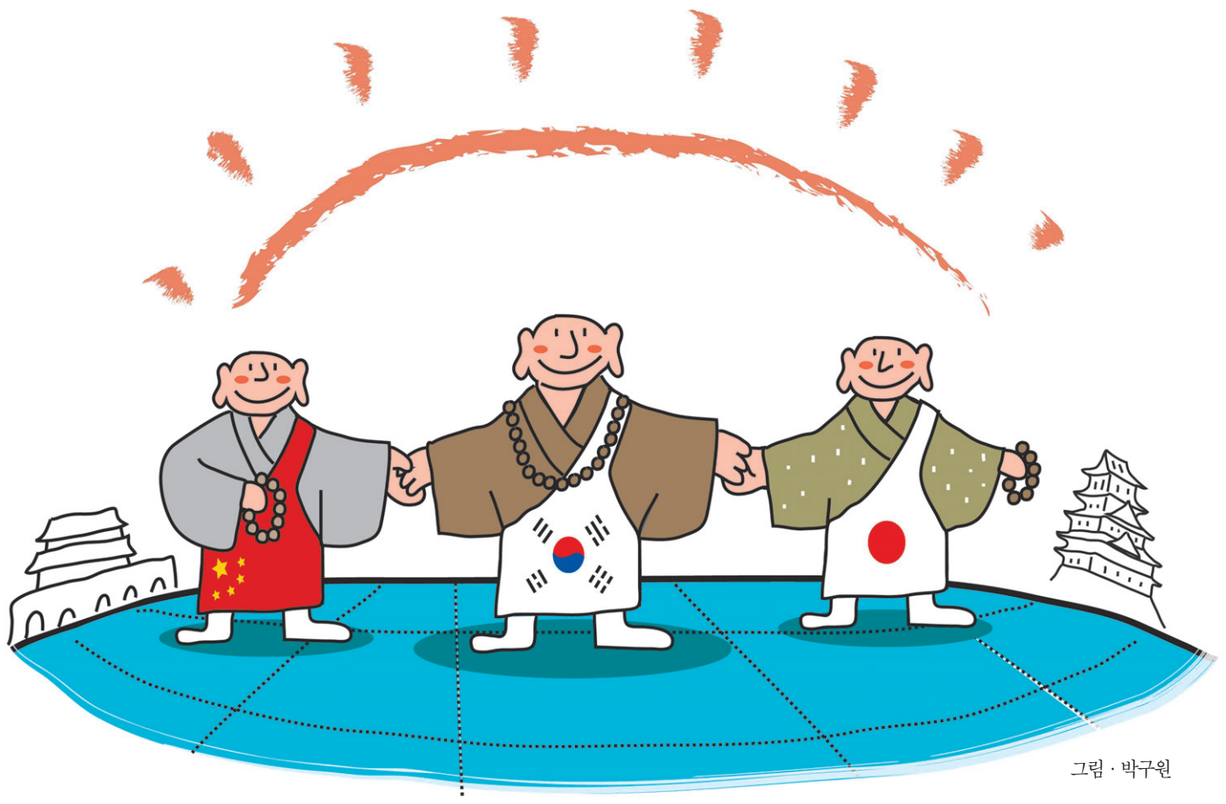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새 지도자 선출로 화해 · 갈등 기로

불교사 공동 저술 필요하지만

실효성 · 저술주체 찾기는 난항 예상

한국도 세계불교 선도할 기구 필요

동북아 지역의 한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대립관계에 있다. 한국은 대미?대북관계,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에 종속돼 있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다.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론과 부정론이 동시에 존재했다. 한중일 불교 우호의 산증인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한중일 지도자는 모두 전후 세대로 교체됐다. 이들은 전쟁이라는 힘든 시절을 겪어본 인물들이 아니다”라며 “새 지도자들이 들어선 만큼 동북아 정세의 긍정적 새 판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문화 등을 교류 협력이 증가되면 불교의 역할도 증가될 것”라고 밝혔다.

일본불교와 적극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현재 세계 패러다임은 국경의 의미가 없어졌지만, 일본만은 한국의 독도, 중국의 센카쿠 열도 등을 가지고 영토 분쟁에 불을 지폈다”며 “현재 일본 언론들은 이웃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온건한 외교 정책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불교 전문가인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중국은 국가 주도로 불교가 부흥되는데 국가입장이 주로 반영될 것이며, 일본 또한 사회가 우경화되며 불교계 또한 국민여론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불교의 영향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삼국 불교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의심스럽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독도문제를 예로 들며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일로를 걸을 때, 국민감정에 맞서서 ‘중요한 것은 일본과 공존 공생해야 한다’ 고 말하기 어렵다. 이는 일본이나 중국의 불교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16년을 맞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 대해서는 3국의 불교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선언적 행사가 아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교류 행사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홍파 스님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유대 관계는 역사적으로 긴밀했다. 1995년 북경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는 16회를 이어오며 외연적인 성공을 거뒀다”며 “대회 내용이 다소 선언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1회 대회에서 고인이 된 중국 조박초 회장의 ‘황금유대’ 정신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이끌고 있는 정신”이라고 평가했다.

종걸 스님도 ‘황금유대’ 정신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이에 맞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그동안 ‘3국 황금유대정신’을 모토로 3국이 매년 돌아가면서 수많은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지속적인 교류도 했다”며 “이제 실질적인 ‘3국 황금유대정신’을 꽃피우려면 가시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치란 WFB 태국본부 집행위원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 집행위원은 “그동안 동북아 황금연대론은 정치적 이유로 중국불교의 우월성과 세력강화의 도구로 이용돼왔다”며 “WFB 차기대회를 개최하는 중국 측이 보다 순수한 의도에서 세계불교도의 우의증진과 교류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파 스님

종걸 스님

김호성 교수

이치란 집행위원

이어 “WFB 역시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62년 동안 불기 통일, 세계불교기 사용, 화합과 일체의 연대 구축 등의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한국불교는 동북아 3국 중심의 불교대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계불교기구에 참여해 공동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불교는 최근 급속히 국가에 종속되고 있는 상황. 국가에 종속되면서 표면화되고 있는 중국불교의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모두 우려를 표했다.

홍파 스님은 “지난해 WFB 대회에서 티베트 망명정부 참석을 이유로 대회를 보이콧한 것은 세계불교인의 잔치상에 재를 뿌린 것”이라며 “중국불교는 2010년 열린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도 한국의 역사를 폄하하는 ‘기자조선론’을 들고 나와 공분을 샀다. 그들의 논리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강력히 항의했지만, 중국불교는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밝혔다.

종걸 스님은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불교포럼은 침체된 중국불교를 ‘세계’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중국 중심으로 개편해서 불교 주도권을 잡아 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며 “오랜 역사를 지닌 WFB 세계불교대회에는 재를 뿌리면서 세계불교포럼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철저한 민족사상에 근거한 이론서를 발행 보급하면서, 초중고 교과서에 이를 반영시켜 교육해야한다”며 “불교계에서는 그들을 초청하여 독창적인 우리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국사에 참사문비를 세우는 등의 일본불교의 전향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종걸 스님은 “지난 9월 군산 동국사에 세워진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 비석이 바로 국제교류의 결실”이라며 “〈참사문〉비에는 불교적 참회사상이 전제돼 있다. 양국 정치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연다면 분명 가시적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파 스님도 “동국사뿐만 아니라 일본불교는 전쟁 당시 한국인들의 유골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번번이 정치적 이유로 좌절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 간 대승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호성 교수는 완벽한 역사의 화해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2012년을 돌아보면 동국사에 일본 조동종 참사비가 건립되는 등 의미있는 한해였다”면서 “하지만 참사비 건립도 일본 조동종 차원이 아니었으며 이후 조동종이 저작권 침해로 석비 반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존의 철학이 아직도 한중일 국가에 자리잡고 있지 못했음을 실감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안에 대해 3국 종교계가 앞장서기보다 협한증 개선 등 국민의식을 바꾸는 일에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제기된 주장이 2010년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 나온 〈한중일 불교사〉 공동 집필이다. 3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실제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종걸 스님은 3국 불교가 꼭 풀어야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3국은 동북아시아 문화권이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별된 문화를 꽃피우면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을 견지해왔다”며 “현재 동북아는 동일한 문화시장으로 묶이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불교도 웃나라를 마음껏 넘나들면서 공동문화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파 스님은 취지는 좋지만, 이상론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홍파 스님은 “한중일의 역사학계가 나서서 공동 교과서를 집필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며 “서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틀리고 이해와 정서가 다르다. 집필 주체를 설정하기도 어렵다. 공동 역사서 집필은 사실상 이상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동북아 평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김호성 교수는 “3국 불교계가 단순한 연대 강화보다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한중일 불교는 각국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놓여 있어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치란 집행위원은 동북아의 평화실현을 위해 삼국불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가장 먼저 한국불교가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리더쉽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불교는 관제불교의 틀을 벗어나 자율성을 갖고, 일본불교는 세속화된 재가불교화로부터 승가정신 회복과 국수주의적 태도를 반성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며 “상시적으로 동북아 정세를 논의할 수 있는 ‘동북아 불교평화포럼’ 같은 상설기구 창설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파 스님도 동북아 불교를 이끌 수 있도록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의 국제기구 창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중국은 세계불교포럼이, 태국은 세계불교도우의회가, 일본은 세계평화종교회의 같은 국제 종교기구가 있다”며 “한국불교도 이미 이들과 버금가는 역량을 가졌다. 이제 범종단 차원의 국제불교기구 창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걸 스님은 연기적 불교문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성숙된 정견을 표출하는 것이 한국불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동북아 3국을 통합하는 힘은 ‘불류(佛流)’에 있다. 기존의 의례적이고 관례화된 행사는 지양하고 ‘동북아 불류시대’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며 “이제는 교류의 양이 아닌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중일 · 노덕현 기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율종)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역경원장 : 혜산법종 율 원 장 : 혜일
사서실장 : 대산 중앙선원장 : 도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종 회 의 장 : 백공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원 로 원 : 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총무부장: 천산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정덕
문화부장: 지운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묘현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해인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원광
교육부원장: 광덕
의식원장: 보운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무량
국제포교원장: 중산청목
기획원장: 진성
기획실장: 노사나
호계원장: 천불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월성
규정국장: 영암
호법부장: 성산, 지호
호법국장: 서산
감찰원장: 상산
감찰부장: 백산지견
감찰국장: 수산
감찰1국장: 무아
감찰2국장: 인산
감찰3국장: 봉산
비구니 회장: 지성
부장: 묘현
총무: 정해
부회장: 해월, 혜산, 월산
재무: 도은, 향인
교무: 현타, 수정
교육: 법신, 성담
문화: 남산, 보현
포교: 보명, 홍산
강원: 덕산, 원산
복지: 정해, 보현
감찰: 본각, 련성
불화: 혜담, 인산, 진화
의식: 영산, 지해, 수옥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정산
서울남부종무원장: 보덕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덕산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남종무원장: 혜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경남종무원장: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중부종무원장: 정오
부산북구종무원장: 수산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울산종무원장: 혜공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중산청목

▣조계종 삼화불교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편집기자: 조덕연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향인, 관불, 해인, 묘현,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불교조계종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설주성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일
기획실장: 심원일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삼화불교대학림

학 장 : 법종 부학장 : 일봉
교 수 : 법종,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원광, 묘현, 지성

▣삼화불교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묘현,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조계종삼화불교신문 (02)3445-7375~6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조계종삼화불교.kr (www.shbuddhism.or.kr)
삼화불교신문: www.jogaejong.or.kr
삼화불교학림: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